

전동킥보드 화재 광주서 3년간 9건

시 소방본부, 배터리 화재나 폭발에 취약해

과충전 인한 과전압 과전류 따른 폭발 위험

광주에서 전동킥보드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화재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전동기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기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대체로 크기가 작고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인화성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

재나 폭발에 취약한 편이다. 과충전으로 인해 배터리 내 과전압 과전류에 따른 폭발 위험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광산구 한 주택에서 전동기기 충전 중 배터리 과충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26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광주지역에서 올해 3건을 포함한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

기에서 9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시 소방본부는 공동주택과 판매업체에 전동킥보드의 과충전 폭발위험성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입주인이 많은 시간대에 직접 방송을 통해 위험성을 홍보하며 소방청과 국립소방과학 연구원에 요청해 공동으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재현실험을 해 사후 대책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소방본부는 △전동기기를 충전할 때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 실내 충전을 하거나 취침 중

충전을 피하고 △반드시 인증 받은 안전한 정품을 사용해야 하며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고온의 환경을 피하며 △동절기 실내로 들어올 때는 배터리 내부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충전할 것을 당부했다.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전동킥보드는 편리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배터리로 인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자 스스로가 사용법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유형주점 무단 증축

불법구조물 ‘여전’

지난 7월27일 발생한 광주 클럽 붕괴사고에도 불구하고 신종클럽(일명 ‘감성주점’)들의 건축물 무단증축 등 불법영업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8월 한달 간 광주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해 감성주점 등 유사업종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성주점은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자치조례를 통해 ‘춤 영업’을 허용하는 업소다.

조사대상은 전국 3516개소 유흥·단란주점 및 감성주점으로 영업장 불법구조물 및 내부구획 변경사항, 안전시설 등 설치·유지관리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조사결과 전체 3516개소 중 23.3%인 821개 대상에서 1159건의 건축물 무단증축 등 불량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기관통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철거·훼손 등 구조적 불량 4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고, 유도등 및 화재감지기 불량과 같은 시설관리소홀 등 610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아울러, 소화기 분산비치 및 조명등 조도불량 등 경미한 사항 457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하고, 무단증축 및 불법 내부구조·용도 변경 등 더 기간 소관 48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통보했다.

특히 신종클럽 유사업종인 감성주점 전체 337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뉴스1



서울 도심서 만나는 금당사 개불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 보물 제1266호 진안 금당사 개불이 특별 공개되고 있다. 개불은 이외에서 법회를 할 때 사용한 대형 불화로, 금당사 개불은 높이가 8.7m·폭이 4.7m다.

한전, 8300억원 투입 ‘호주 광산사업’ 좌초 위기

한국전력이 8000여억원을 들인 호주 바이롱 석탄 광산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광산 개발 재검토 요구가 거세지자 개발허가를 현지 당국이 반려한 것인데 10년 전 광산 지분 인수 후 사업 진척이 없어 개발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일 한전에 따르면 호주 독립 평가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바이롱밸리에서 추진 중인 ‘바이롱 광산 사업’ 개발허가를 공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 반려 결정을 내렸다.

바이롱 광산 사업은 NSW주 바이롱밸리에 있는 노천과 지하탄광을 개발해 연간 630만톤의 석탄을 25년간 생산하려는 사업이다. 한전 호주법인이 2010년 7월 바이롱 광산의 지분 100%를 인수한 후 9년째 개발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업에 총 7억달러(약 8370억원)를 투입했다.

가장 큰 원인은 현지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다. 호주 독립 평가위원회는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지하수 오염, 농지 재생, 경관 문제, 온실가스 영향 등에 있어서 사업 개발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업 개발 효과보다 환경 훼손

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한전은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이 세계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사업 추진 기간 중 최대 645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호주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전은 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해 허가를 재신청하는 방안을 비롯해 소송 제기, 바이롱 광산 매각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매각을 했을 때 투자한 자금의 일부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광주서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광주·전남지역 건설노동자가 외국인 불법 노동 근절 등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 접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1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노조 사무국장 이모씨(39)는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광주 북구 입동의 J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1대를 접거하고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A씨는 타워크레인에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생존권 쟁취 지역민 우선고용’ 등이 적힌 현수막 2개를 내걸었다.

노조는 최근 J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와 임금·단체협약 타결, 불법 하도급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J건설은 외국인 불법체류자 40여명을 불법으로 고용했다가 지난 16일 적발돼 4명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하면서 역으로 내국인의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1



이슈 판결

“환청·망상에” 묻지마 폭행

50대 조현병환자, 징역형

재판부 “구금보다는 보호관찰·치료가 타당”

환청과 망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들을 잇따라 폭행, 협박한 50대 편집조현병 환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및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그 해 12월 28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마주친 시민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흉기로 협박,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기사 B씨(62)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기도 했으며, 10월 무렵에는 “담배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부평구 한 아파트 앞 길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C씨(72)를 협박하고, 인근 마트 앞 길에서 D씨(66)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 해 9월~10월 부평구 한 아파트 앞에서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 E씨(66·여)의 뺨을

1차례 때리고, F씨(72·여)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이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소장(55)을 폭행하고 병원에 입원해서는 간호조무사(24·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 승강장에서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고 인근에 비치된 소화기를 분사해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오래 전부터 편집조현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 왔다”며 “이 사건 범행도 조현병에 따른 환청 및 망상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달라진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금보다는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1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폐지표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성애건강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